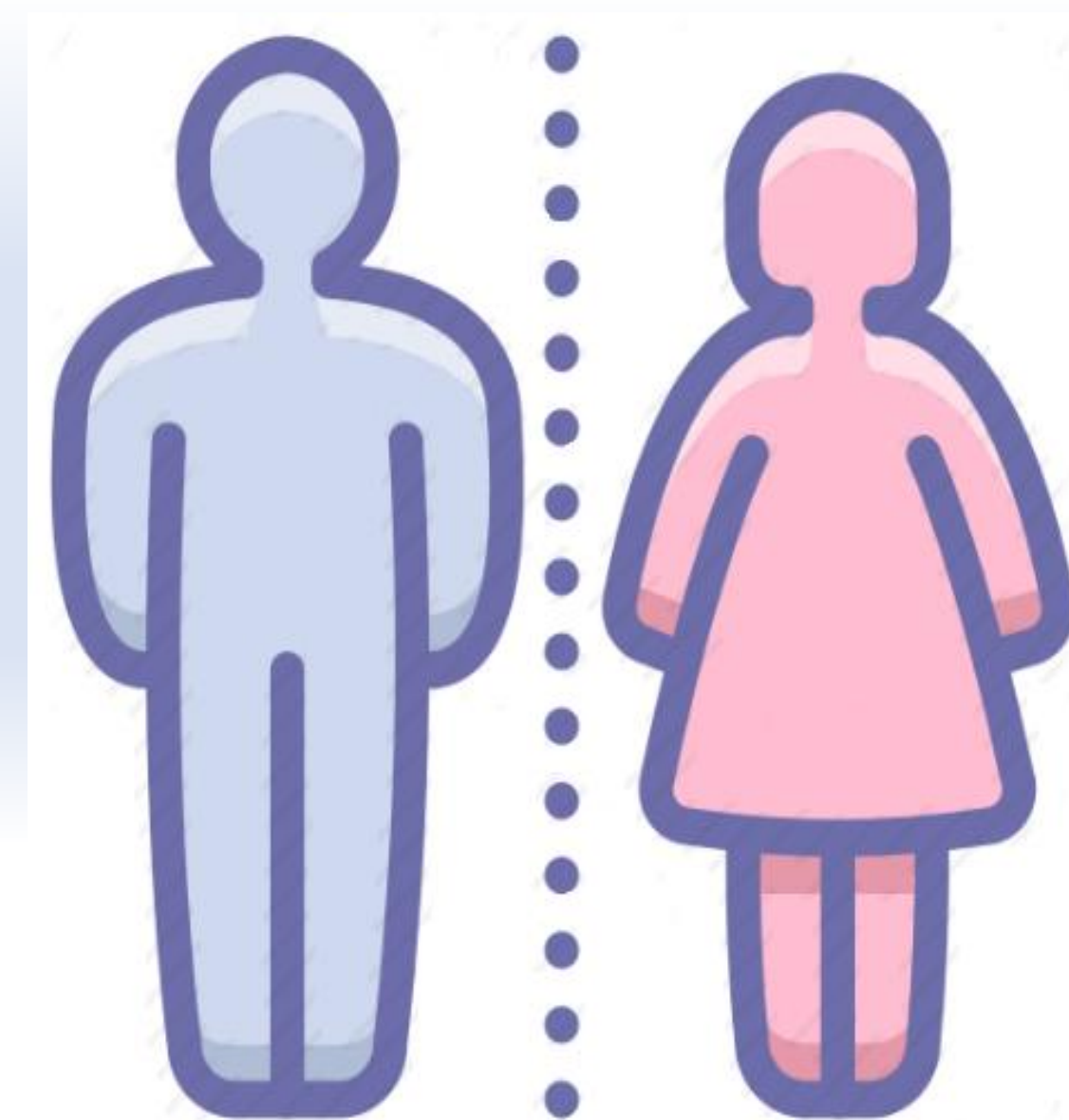




남혐 · 여혐 극복하기



사회학과 201221990 김수지

사회조사방법론 & 젠더사회학 강의페어링

송하석 교수님 지도

목적

최근 들어 한국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인터넷 상의 남녀 간 갈등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이제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혐오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 2000년대부터 등장한 신조어 ‘김치녀’, ‘된장녀’부터 2010년대 등장한 ‘한남충’ 등의 용어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에 대한 맹목적 혐오를 멈추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젠더사회학' 에서의 강의페어링

사회과학에서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성, 인종, 연령, 계급 등 인간의 속성이 사회불평등의 주요 분석범주가 되고 있는데, 이중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강좌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젠더로서 경험하게 되는 사례들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와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파악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관계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조사방법론' 에서의 강의페어링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사회조사’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 탐색 하고 기술하며 인과관계를 밝히는 전 범위의 과정이다. 즉, 사회조사방법론은 연구자가 사회현상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어떻게 융합하였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사실, 젠더 문제라는 것은 연구자의 문제제기 단계에 있어 필연적으로 주관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젠더 문제에 관한 조사, 예컨대 통계 자료 분석의 활용과 같은 것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시키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사회조사방법론(이하 사조방)에서는 통계 자료와 같은 1차 자료의 사용을 주된 조사 도구 중 하나로 본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젠더 현황을 다양한 척도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 (남녀갈등 해결방안 모색)에 부합하기 위해 현재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련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함으로 사조방에서 배운 조사기법을 젠더사회학 과목에 응용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젠더 문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분석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남녀 간 갈등을 접하게 될 때, 어느 한 쪽의 의견에 현혹되지 않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2000년대 이전의 과거에 비하면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권리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 졌다고 보긴 어렵다. 취업시장에서 그 점이 제일 두드러지는데 우선 신규 채용에서 남녀 간 격차가 분명 존재한다. 더욱이, 승진 특히 고위직 진출에 있어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함은 명백한데, 이는 대학생인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고정된 성 역할로 인해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여성이 전담하게 된다는 것에 있다. 이를 개선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스웨덴과 같은 여성 인권 선진국의 정책을 참고하여 취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사회조사방법론 제 11판, 저자 Earl R. Babbie |역자 김광기, 김상욱, 고성호 |출판사 Thomson Learning
- 젠더와 사회,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저자 한국여성연구소 |출판사 동녘